

#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의 관계

이재겸, 김중경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e-mail:jj2c@nate.com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ae-Kyeum Lee, Jung-Kyoung Kim  
Dep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 요약

본 논문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정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두 개 지역 간호대학생 126명이었고, 자료분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분석을 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성은 학년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성은 성별,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지원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내활동은 학업 성적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에서 인성은 관계성 및 교내활동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성과 교내활동역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회귀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학년, 관계성 및 학교생활 만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0.8%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인성을 높이기 위해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인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서론

대학생활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인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여 그 구성원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

최근 각 대학에서는 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대학생들이 인성강화를 위한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대부분이 임상간호사로 근무하게 되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임상간호사는 높은 지식과 도덕적 소양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습하는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3주기 간호인증평가에 인성교육을 더욱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3].

인성은 자기존중, 자기조절, 성실, 배려, 책임, 소통 등의 덕목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4]. 이러한 덕목은 여러 활동을 통

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험하게 된다.

관계성이란 자신과 타인을 심리적·정서적으로 연결시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과 상호간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관계성이 높아진다(Rydan & Deci 2000)[5]. 관계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이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한다. 또한 사회생활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6],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과 만족, 학업능력 향상 및 교내활동 참여를 증진시킨다.

교내활동은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1]. 교내활동의 유형에는 동아리 활동, 어학연수, 공모전, 봉사활동, 교수와의 상호작용, 교우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활동은 대학의 교육성과 및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7]. 대학생의 핵심역량으로 대인관계, 의사소통, 팀워크, 배려, 윤리 및 공동체 의식, 배려역량 등은 교육부 및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한 인성역량에 포함되는 개념[1]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강

화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관계성과 교내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전문직 간호사로 업무에 종사기 전인 간호대학생 때부터 인성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04월 22일에서 2021년 05월 02일까지 G도와 K도에 위치한 2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에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도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총 135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26명 이었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설정하였을 때 119명이 산출되었다.

### 2.3 연구도구

#### 2.3.1 인성

인성은 Park & Hur[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53점 최고 26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94 이었다

#### 2.3.2 관계성

관계성은 Deci와 Ryan[9]의 개인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는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 BPNS)를

Lee[10]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5점 최고 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8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8 이었다

#### 2.3.3 교내활동

교내활동 참여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하고 Nam[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1점 최고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내활동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Nam[1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8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7 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도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 4)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참여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은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년은 1,2학년이 3,4학년에 비해 인성 점수가 높았고 (F=3.487, p=.018). 학과 만족도는 나쁨과 보통에 비해 좋음이 높았고 좋음에 보다 매우 좋음이 높았다(F=8.491, p<.000). 관계성은 성별,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지원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과 만족도는 나쁨과 보통에 비해

좋음이 높았고 좋음에 보다 매우 좋음이 높았고(F=8.491, p<.000), 지원 동기는 취업률과 타인의 권유보다 적성을 고려하거나 기타가 높았다(F=3.212, p<.025). 교내활동은 학업 성적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

정 결과 학업성적은 3.0이상인 학생이 3.0미만의 학생보다 높았고(F=6.833, p<.002), 학교생활 만족도는 나쁨, 보통, 좋음에 비해 매우 좋음이 높았다(F=4.804, p<.003). (Table 1).

Table 1. Differences between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haracter		Relatedness		Participa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6(20.6)	212.69±2.81	.796 (.427)	21.35±2.81	-2.041 (.043)	41.27±8.16	.901 (.369)
	Female	100(79.4)	208.70±2.70		22.57±2.70		39.88±6.67	
Degree	1-yeara	16(12.7)	219.94±23.62	3.487 (.018) a,b>c,d	23.31±2.57	1.894 (.134)	40.50±6.05	1.251 (.294)
	2-yearb	31(24.6)	215.48±23.28		22.81±2.49		41.16±7.97	
	3-yearc	28(22.2)	209.07±24.66		22.32±2.95		41.46±6.55	
	4-yeard	51(40.5)	202.90±19.05		21.71±2.78		38.75±6.25	
Religion	Christian	26(20.6)	215.15±22.81	1.048 (.374)	23.15±2.96	1.025 (.384)	40.85±7.93	.239 (.869)
	Catholic	13(10.3)	212.00±19.92		22.08±3.27		38.85±7.11	
	Buddhism	5(4.0)	215.60±35.05		22.40±2.79		40.60±8.96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a	24(19.0)	218.33±27.86	2.313 (1.03)	23.58±2.56	3.416 (.036)	43.88±7.63	6.833 (0.02) a,b>c
	3.0~3.9b	92(73.0)	207.27±21.26		21.97±2.70		39.76±6.48	
	2.0~2.9c	10(8.0)	209.20±18.18		22.50±3.02		35.00±6.20	
Major Satisfaction	Bada	5(4.0)	190.80±39.17	8.491 (.000) a,b<c<d	20.60±4.56	5.448 (.002) a,b<c<d	38.40±14.29	4.804 (.003) a,b,c<d
	Nor badb	42(33.3)	201.93±16.92		21.52±2.87		37.71±5.99	
	Goodc	59(46.8)	210.24±21.23		22.39±2.51		40.61±6.47	
	Very Goodd	20(15.9)	228.97±4.91		24.20±1.60		44.45±6.30	
Motive	Employment	40(31.7)	207.50±20.07	2.458 (.066)	21.43±3.02	3.212 (0.25) a,b<c,d	40.08±6.81	1.893 (.134)
	Recommendation	23(18.3)	200.13±24.24		21.91±2.99		38.04±7.47	
	Aptitude	57(45.2)	213.93±22.80		23.09±2.26		41.46±7.00	
	Other	6(4.8)	217.33±23.89		22.50±2.81		36.67±3.50	

(n=126)

### 3.2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 정도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5점이었고, 관계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46점이었으며, 교내활동 참여는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Mean±SD	Range
Character	3.95±0.92	1~5
Relatedness	4.46±0.67	1~5
Participation	3.65±1.18	1~5

### 3.3 대상자의 인성, 관계성 및 교내활동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관계성(r=.552,p<.000), 교내활동(r=.593,p<.000)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은 교내활동(r=.288,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 relatedness and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Character	Relatedness	Participation
Character	1		
Relatedness	.552 (.000)	1	
Participation	.593 (.000)	.288 (.001)	1

### 3.4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 관계성, 교내활동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794으로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관계성(β=.415,p=.000),

교내참여( $\beta=.247, p=.001$ ), 학년( $\beta=-.158, p=.032$ ), 학교생활 만족( $\beta=.111, p=.152$ )으로 나타났으며, 인성에 대한 설명력은 40.4%였다 (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character

Spec.	B	SE	$\beta$	t	p
Constant	114.479	.346		7.268	.000
Relatedness	3.413	.641	.415	5.323	.000
Participation	4.624	1.366	.247	3.384	.001
Degree	-3.329	1.533	-.158	-2.171	.032
Major Satisfaction	3.377	2.343	.111	1.441	.152
F(p)	20.502(<.001)				
R2	.404				
Adjusted R <sup>2</sup>	.636				

## References

- [1] H. S. Le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grees of Class Activities, Out of Class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and the Character Development Level of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2] J. H. Park.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5(6):3321-3332.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of Nursing Education Workbook*. 3th ed.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 [4] M. R. Lee., & M. H. Nam. Persona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6): 427-437. DOI: <http://doi.org/10.14257/ajmahs.2017.06.24>
- [5] R. M. Ryan., &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000;55(1), 68-78. DOI: 10.1037/110003-066X.55.1.68
- [6] S. M. Kown. *Pos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2018.
- [7] H, S, Nam.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ndergraduate's Perceptions of College Educatio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Hannam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Korea, 2017.
- [8] S, M, Park., & S, H, Hur. (2012).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umanity scale for adolesc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3), 35-47. (1410-ECN-0102-2012-370-003057214)
- [9] Deci, E. L., & Ryan, R. M. (1992). The initiation and regulation of intrinsically motiv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Achievement and motivation: A social-developmental perspective*. 9-36.
- [10] M, H, Lee. *A Study in the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 Validity of A 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ase on Self-determination Theory(SDT) for Korea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8.